

부모와 자녀의 삶 만족도가 학교 적응에 미치는 인과적 전이관계 분석: 성장혼합모형을 이용한 잠재전이분석을 중심으로*

강윤아** · 신태수***

초 록

본 연구는 부모 삶 만족도가 자녀 삶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및 학교적응으로의 인과적 전이관계(cause and effect transitions)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에서 수집된 중학교 3학년(2012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2015년)까지 총 2,259명의 종단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첫 단계로써 부모, 자녀의 삶 만족도 및 학교적응의 종단적 변화를 잠재성장모형으로 추적하였고 다음 단계로 각 요인의 변화 유형을 잠재계층분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녀의 삶 만족도 및 학교적응의 변화 유형간 인과적 전이관계를 분석하였다. 잠재성장모형 분석결과 부모 삶 만족도와 학교적응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크기는 작으나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자녀 삶 만족도는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세 변인 모두 초기위치와 선형성장에 있어 개인차가 존재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만족도와 학교적응의 개인 간 격차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계층분석에서는 부모와 자녀 삶 만족도의 경우 만족도가 증가/유지/감소하는 3개의 하위집단이, 학교적응의 경우 적응수준이 유지/감소하는 2개의 하위집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잠재전이분석의 결과 부모 삶 만족도가 감소하는 집단의 자녀 역시 삶 만족도가 감소하는 집단에 소속될 확률이 높았으며, 나아가 자녀 삶 만족도가 감소하는 집단에서 학교적응이 감소하는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자녀의 삶 만족도 개선을 위해 부모의 변화와 인도가 필요하며, 학교부적응을 개선하기 위해 삶 만족도라는 정서적 요인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삶 만족도, 학교적응, 부모-자녀 관계, 종단연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 본 연구는 강윤아의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명지대학교 대학교육혁신원 전임연구원, 제1저자, yunah26@naver.com

*** 명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청소년지도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shin16@mju.ac.kr

I. 서 론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11개 지표(주거, 소득, 직업,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 참여, 건강, 삶 만족도, 안전, 일과 생활의 균형)를 토대로 발표한 ‘더 나은 삶의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삶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9점으로 38개국 중 30위에 해당하며, OECD 평균(6.5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7). 해당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삶에 대한 불만족이 상대적으로 크며, 삶 만족도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삶 만족도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정서를 경험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이명숙, 2013). 이를 연령별로 구분하였을 때 중년기 삶 만족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자녀양육에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교육에 집착하며 희생하는 우리나라 부모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성자, 1997; 임소진, 2017). 이러한 특성은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스트레스가 주로 자녀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김경희, 2007) 중년기 삶 만족도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자녀관계 만족도라는 결과(임소진, 2017)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모-자녀간의 집착적인 관계가 중년기 삶 만족도를 감소시킬 수는 있겠으나, 해당 관계는 인간이 최초로 맺는 사회적 관계로써(최선남, 최외선, 1995) 많은 연구에서 그 중요성이 입증되어 왔다(윤기영, 2002; 주은미, 2011).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뿐만 아니라(박경희, 2013) 학습(박은희, 2014; 이혜경, 2013),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경희, 2014) 등에서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부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의 분노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류유리, 2015), 문제행동을 증가시킨다(이길홍, 김현수, 민경근, 1982).

청소년기에 있어서 삶 만족도와 직결되는 주요 요소로 ‘학교’를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이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주현정, 1998) 학교생활만족도가 감소한다는 것은 학교 내에서 청소년 발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한편 학교적응이란 학교 내에서의 개인 욕구를 합리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학교 환경에 순응 혹은 변화하려는 적극적,

창조적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김지혜, 1998; 문은식, 2001), 청소년 개개인의 삶 만족도가 학교생활 내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삶 만족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 이 때, 김문선(2013)과 강승희(2010)는 청소년의 삶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고미숙(2017)과 권순용과 양연숙(2007)은 청소년 개인의 정서적 안녕과 학교적응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전현정과 정혜원(2016)은 삶 만족도의 변화율이 학교적응의 변화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둘 사이의 종단적인 연관을 밝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수의 연구에서 청소년 삶 만족도와 학교적응은 연관되어 있으며 삶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아진다고 하였지만 선행연구 대부분이 횡단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특정 시기의 현상을 분석하는 것에 머무름으로써 정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함에 한계가 있었으며, 종단분석을 사용하더라도 각 변인들의 특성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부모의 삶에 대한 태도와 만족이 자녀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나아가 자녀의 삶 만족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관계를 통합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부모-자녀 삶 만족도와 학교적응간의 인과적 전이관계(cause and effect transitions)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모 삶 만족도 변인, 자녀 삶 만족도 변인, 학교적응 변인의 변화 형태를 추적하고 서로 다른 변화 유형(집단)이 인과적으로 어떻게 전이되는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함의는 청소년의 삶 만족도 향상과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고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삶 만족도

일반적으로 삶의 질은 사회학 부문의 객관적 삶의 질과 심리학 부문의 주관적 삶의 질로 나뉜다(김신영, 백혜정, 2008). 본 연구에서 다루는 삶 만족도란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평가로, 개인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정서를 경험하는지를 의미한다(이명숙, 2013).

이명숙(2013)에 따르면 삶의 질에 대한 질문(‘나는 현재 여가생활에 만족한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만족한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나의 미래는 밝다’)에 대해 한국 청소년은 중국 청소년에 비해 낮은 평균을 나타내고 있어(한국: 2.78 < 중국: 3.20)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 만족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삶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으며(김신영, 백혜정, 2008; 김혜원, 홍미애, 2007; 최유선, 손은령, 2015)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높았다(김혜원, 홍미애, 2007). 한편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높은 연구도 있어서(김신영, 백혜정, 2008) 학교 급에 따라 삶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는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심리 정서적 변수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고 절망감, 적대감이 낮을수록 삶 만족도가 높으며(구현영, 박현숙, 장은희, 2006)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 만족도가 낮았다(김남정, 임영식, 2012). 마지막으로 사회적 변수의 경우 부모-자녀 간, 친구간 의사소통이 활발할수록 삶 만족도가 높으며(구현영 외, 2006) 또래와의 긍정적인 대인관계형성이 이루어질 때 삶 만족도가 높았다(최유선, 손은령, 2015).

2. 부모-자녀 관계

부모는 자녀가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에 매우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박경희, 2013)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적절한 물리적 환경과 충분한 상호작용을 제공함으로써 자녀가 근본적인 사회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윤기영, 2002).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많은 도움을 주며(박경희, 2013)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몰입, 학습동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박은희, 2014; 이해경, 2013). 또한 자녀가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를 지각할 경우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높아지며(이경희, 2014), 창의적 성격 요인 중 개방성, 추진력, 자기확신이 높아지는 등(박경희, 2013) 발달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는 분노표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류유리, 2015) 부모와의 접촉이 뜸할수록, 부모가 헌신적이지 않을수록 자녀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킨다(이길홍 외, 1982).

이 때, 부모의 삶 만족도와 자녀의 삶 만족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확인해보면 먼저 김의철과 박영신(2001)의 연구에서 자녀의 생활만족도가 부모의 생활만족도와 정적 관계를 나타내고 자녀의 스트레스 증상이 부모의 스트레스 증상과 정적 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녀가 유아일 경우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냄으로써 부모의 행복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행복감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였고(김도란, 김정원, 2008) 자녀가 대학생일 경우 역시 높은 정적 상관을 통해 부모가 행복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도 행복의 정도를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권영주, 2008).

3. 학교적응

학교생활은 학교에서 받는 교육적 영향의 총체를 의미하며, 학부모와 교사는 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함으로써 교육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최유엔, 2003). 무엇보다 우리나라 현실상 청소년 일과 대부분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적응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주현정, 1998).

이러한 의미에서 학교적응이란 학교 내에서 개인의 욕구를 보다 합리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 환경에 순응하거나 변화시킴으로써 환경과 개인 사이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김지혜, 1998; 문은식, 2001). 학교적응은 개념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측면에 초점을 두고 개념화한 여러 연구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학교 적응을 수업 참여도,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 성취도, 문제 행동의 4가지로 구분한 김지혜(1998)의 연구 외에도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만족도를 제시하거나(이규미, 2005),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 학교규칙, 학교행사를 제시하는 등의(정화실, 2009) 다양한 연구가 있다. 이러한 하위요인 중 본 연구에서 주목한 것은 학습활동이다. 청소년의 가장 큰 스트레스이자 관심의 대상은 학업과 관련된 영역이며(김경자, 2016), 학습활동과 학업성취도는 청소년의 주요 발달과업이자(황매향, 2006) 학교적응 여부 판단시의 중요 요소이기 때문이다(손수경, 이현정, 홍세희, 2017; 이혜진, 2011).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교성적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학교적응 수준이 높았다(장영애, 박정희, 2008; 주현정, 1998).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학

교적응 수준이 높고(김지혜, 1998), 가족과의 대화시간이 많거나(주현정, 1998) 부모가 지지적·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며 자유롭게 의사소통할수록(장영애, 박정희, 2008) 학교적응 수준이 높았다.

4. 삶 만족도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

청소년 삶 만족도는 학교적응과 연관되어 있으며(고미숙, 2017; 권순용, 양연숙, 2007; 전신현, 1996), 삶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아진다(강승희, 2010; 김문선, 2013). 그리고 삶 만족도 변화율은 학교적응 변화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단적 추이를 보인다(전현정, 정혜원, 2016).

그리고 가족관계의 질을 구성하는 변수들이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강유진, 문재우, 2005)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고(임수경, 이형실, 2007) 부모가 자녀를 방임할 경우 자녀 삶 만족도를 감소시켜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송순만, 백진아, 2016).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자아존중감-삶 만족도-학교적응으로의 경로를 규명한 신미, 전성희와 유미숙(2012)의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다고 한 임수경과 이형실(2007)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과거 삶 만족도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삶 만족도가 자녀의 삶 만족도에, 나아가 학교적응까지 이어지는 인과적 전이 관계를 패널 데이터와 잠재성장모형, 잠재계층분석, 그리고 잠재전이분석이라는 세 가지 종단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학문적 기초 자료 뿐만 아니라 청소년 교육현장에서의 실질적 활용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를 이용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는 초등학교 1학년 패널, 초등학교 3학년 패널, 그리고 중학교 1학년 패널 등 총 3개 패널 7,071명과 그 보호자를 추적한 조사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관심변인들이 모두 유효하게 측정된 3차년도(2012년)부터 6차년도(2015년)까지의 연구 데이터이며, 3차년도 조사 인원에 해당하는 2,259명을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중학교 1학년 패널의 3차년도 설문지의 설문 문항 중 부모 삶 만족도 1문항, 자녀 삶 만족도 3문항, 학교적응 중 학습활동 5문항 등 총 9문항을 사용하였다.

부모 삶 만족도의 측정은 단일문항(‘귀하는 귀하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으로, 자녀 삶 만족도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형 4점 척도 안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삶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문항을 역코딩하였다. 그리고 학교적응의 측정은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형 4점 척도 안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일부 문항을 역코딩하였다(‘공부시간에 딴 짓을 한다’ 문항은 내용상 역코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역코딩하지 않았다).

조사 도구의 일관성 및 적합성 검증을 위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녀 삶 만족도’ 3문항과 ‘학교적응’ 5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최저 .74와 최고 .82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조사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분석을 통해 산출된 변인별 신뢰도 계수는 표 1과 같다.

표 1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의 α)

척도	문항 (*표시는 역코딩 문항)	중3 (2012)	고1 (2013)	고2 (2014)	고3 (2015)
자녀 삶 만족도	- 나는 사는 게 즐겁다* -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82	.81	.78	.82
학교 적응	- 학교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 학교 숙제를 빠트리지 않고 한다* -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친구들)에게 물어본다* - 공부 시간에 딴 짓을 한다	.74	.75	.78	.78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부모 삶 만족도 변인, 자녀 삶 만족도 변인과 학교적응 변인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 잠재계층분석, 잠재전이분석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데이터 분석 시 SPSS 21.0과 Mplus 7.2를 사용하였으며, 모든 모형의 모수추정과 결측치는 최대우도추정기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삶 만족도 변인, 자녀 삶 만족도 변인, 학교적응 변인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무변화 모형, 선형모형, 이차함수 비선형 모형¹⁾과 대안적 비선형모형으로 시그모이드 함수(Sigmoid function)에 기초한 고펜츠(Gompertz) 모형과 로지스틱(logistic) 모형²⁾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최적의

1) 비선형모형은 두 개의 성장요인(시점의 선형변화: t ; 시점의 비선형변화 t^2)을 가진 다항함수 (polynomial function)를 이용하여 궤적을 추적하는 모형이다.

2) 고펜츠(Gompertz) 모형과 로지스틱(Logistic) 모형은 비선형성장의 궤적을 추적하기 위해 개발된 모형으로 성장요인의 부하량을 규칙적으로 고정하는 선형모형($t = 0, 1, 2, 3, \dots$)과 달리 지수함

모형을 선정하기 위해 χ^2 및 AIC, BIC, 보정된 BIC, RMSEA, SRMR, CFI, TLI 등의 적합도 지수를 참고하였다.

둘째, 부모 삶 만족도 변인, 자녀 삶 만족도 변인, 학교적응 변인 내에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유형화하고 변인 내 하위 계층을 구분하기 위하여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 때 무선효과요인 값(초기위치 및 변화요인들의 분산과 공분산)들은 계층에 걸쳐 동일하게 제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세 개의 정보지수(AIC, BIC, Adjusted BIC)와 분류의 질을 의미하는 Entropy, LMR 검증, BLRT 검증을 사용하였다. 실제 분석은 적절한 잠재계층의 수를 찾아내기 위해 각 변인의 계층 개수 별 모형 적합도 지수를 비교한 후, 하위 집단별 특성을 추정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셋째, 부모 삶 만족도 변인, 자녀 삶 만족도 변인, 학교적응 변인의 각 시점 간에 존재하는 개인의 소속 잠재계층 변화를 탐색하기 위하여 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실제 분석은 각 변인의 잠재계층 간 전이확률을 확인하기 위해 변인 간 관계를 오즈비(odd ratio)로 산출하고 이동 패턴을 파악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특히, 잠재전이분석에서는 모수추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Bakk과 Kuha가 제시한 2단계 접근법(Bakk & Kuha, 2017)을 사용하였다.³⁾

수나 로그함수를 이용하여 성장요인의 부하량을 설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의 기술적인 설명은 Shin(20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 잠재계층모형(혼합모형)에서 계층과 공변인(Covariate), 계층과 결과변인(distal outcome), 그리고 계층 간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분석방법은, 계층을 먼저 유형화(무조건 모형)한 후 계층과 기타 변인관계를 추정하는(조건 모형) 접근법이다. 이의 문제점으로는 무조건 모형과 조건 모형 분석에서 얻어지는 집단의 유형이 서로 달라 결과의 신뢰성이 매우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Vermunt, 2010).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무조건 모형에서 얻은 집단소속 확률에 기초하여 측정오차를 고려한 계층지표변인(class indicator variable)을 생성하고 이를 기타 변인과의 관계분석에 이용하는 3단계 접근법(Asparouhov & Muthén, 2014; Bakk, Tekle & Vermunt, 2013; Vermunt, 2010)이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신 분석기법인 2단계 접근법(Bakk & Kuha, 2017)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3단계 접근법에서 소속확률의 오차를 고려한 계층지표변인을 생성하는 단계를 생략하고 무조건모형분석에서 얻은 집단별 추정 모수를 고정화한 후 기타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즉 개별 잠재집단의 고정 및 자유 성장모수(초기위치, 선형성장의 평균값과 분산 및 공분산)의 값들을 모두 고정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2단계 접근법은 모수와 표준오차의 추정에 있어 3단계 기법보다 우수하거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akk & Kuha, 2017).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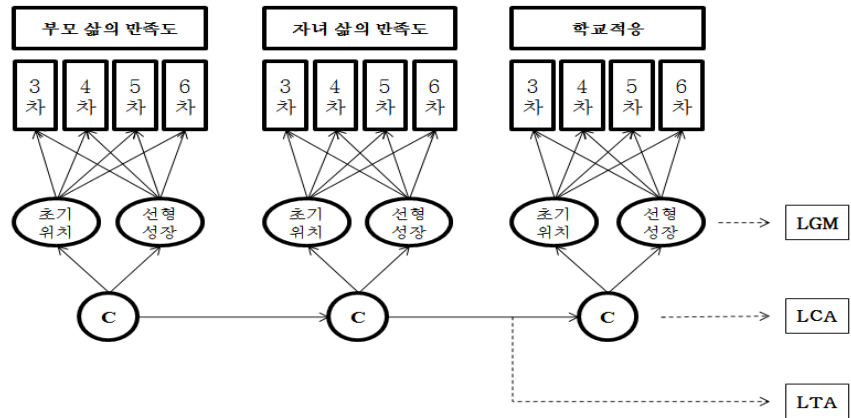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분석 모형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연구모형에 사용된 변인인 부모 삶 만족도, 자녀 삶 만족도, 학교적응 변인의 기술 통계를 살펴보면 각 변인의 왜도가 절댓값 2 미만(.01~.62)이고 첨도가 절댓값 7 미만(.03~2.10)이므로 단변량 정규성을 크게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Brandt, Kelava & Klein, 2014), 다변량 분포의 가정이 위반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강건한 최대우도추정기법(Robust ML)을 이용하여 모형적합도와 표준오차를 추정하였다.

2. 잠재성장모형

1) 각 변인별 변화모형 검증

부모 삶 만족도 변인, 자녀 삶 만족도 변인, 학교적응 변인의 변화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무변화 모형과 변화모형들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표 2, 표 3, 표 4), 변인 3개 모두 변화 모형이 무변화 모형보다 자료를 더 적절히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모 삶 만족도의 경우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은 선형변화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간 비교에서는 특히 간명성 지수인 IC를 확인하여야 하는데(신타수, 2011), 선형변화모형이 가장 작은 BIC 값을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선형변화 모형은 χ^2 을 제외한 모든 적합도가 기준치를 충족하였다(RMSEA=.05, SRMR=.03, CFI=.96, TLI=.95). 비선형변화 모형은 두 개의 적합도만 기준치를 충족(SRMR=.03, CFI=.97)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모형은 수렴에 실패하여 적절한 결과를 얻지 못한 반면, 고펀츠 모형은 제일 좋은 적합도 지수를 보고하고 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더 간명한 모형구조로 자료를 적절히 설명하는 정도에 있어서 선형모형이 고펀츠 모형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삶 만족도와 학교적응 변인 역시 선형변화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명성 지수를 보면 BIC가 가장 낮은 것은 비선형변화 모형이지만 비선형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 간 IC 지수의 차이가 3 미만이기 때문에 더 간명한 모형인 선형변화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⁴⁾. 그 외에도 선형변화 모형은 χ^2 을 제외한 모든 적합도가 기준치를 충족하였다(자녀 삶 만족도: RMSEA=.05, SRMR=.04, CFI=.98, TLI=.97; 학교적응: RMSEA=.05, SRMR=.04, CFI=.99, TLI=.98). 비선형변화 모형 역시 대부분의 적합도가 기준치를 충족하였으나(자녀 삶 만족도: RMSEA=.05, SRMR=.01, CFI=1.00, TLI=.97; 학교적응: $\chi^2=3.84$, RMSEA=.04, SRMR=.01, CFI=1.00, TLI=.99), 잠재요인의 공분산행렬이 음의 정부호(negative definite)를 가지고 있어 결과의 신뢰성이

4) Raftery(1995)의 기준에 따르면 IC 지수의 차이가 2~3인 경우 간명한 모형을, 3~5인 경우 중간적인(moderate) 차이로 기타 적합도를 모두 고려해야 하며, 5 이상인 경우 복잡한 모형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였다.

떨어지거나 성장요인의 공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적절한 모형으로 선택되지 못했다. 한편, 고펀츠 모형은 모두 수렴에 실패하였고 로지스틱 모형은 학교적응의 변화분석에서 우수한 적합도 지수를 보고하였지만 간명성 지수 결과에 기초하여 선형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한 수리구조를 가진 두 시그모이드 비선형함수 모형의 경우 수렴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측정 시점(4개 시점)이 상대적으로 적고 연도 간 측정치의 변화가 크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부모 삶 만족도 변인의 잠재성장 모형 적합도

부모 삶 만족도	무변화 모형	선형변화 모형	비선형변화 모형	대안적 비선형변화 모형 고펀츠	로지스틱
χ^2	80.27***	33.74***	25.60***	5.86***	-
AIC	12075.77	12014.86	12008.61	11998.70	-
BIC	12110.17	12066.46	12083.14	12078.97	-
Adj BIC	12091.11	12037.86	12041.83	12034.49	-
RMSEA	.06	.05	.10	.00	-
SRMR	.06	.03	.03	.01	-
CFI	.90	.96	.97	.99	-
TLI	.93	.95	.80	1.00	-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자녀 삶 만족도 변인의 잠재성장 모형 적합도

자녀 삶 만족도	무변화 모형	선형변화 모형	비선형변화 모형	대안적 비선형변화 모형 고펀츠	로지스틱
χ^2	75.61***	37.35***	7.21**	-	-
AIC	14167.16	14130.43	14104.12	-	-
BIC	14201.53	14181.99	14178.59	-	-
Adj BIC	14182.46	14153.39	14137.29	-	-
RMSEA	.06	.05	.05	-	-
SRMR	.07	.04	.01	-	-
CFI	.95	.98	1.00	-	-
TLI	.97	.97	.97	-	-

* $p < .05$, ** $p < .01$, *** $p < .001$

표 4

학교적응 변인의 잠재성장 모형 적합도

학교적응	무변화 모형	선형변화 모형	비선형변화 모형	대안적 비선형변화 모형 곰펠츠	로지스틱
χ^2	80.08***	29.07***	3.84	-	20.34**
AIC	10321.50	10259.22	10235.40	-	10268.77
BIC	10355.87	10310.77	10309.86	-	10331.78
Adj BIC	10336.81	10282.18	10268.56	-	10296.83
RMSEA	.06	.05	.04	-	.05
SRMR	.09	.04	.01	-	.05
CFI	.95	.99	1.00	-	.99
TLI	.97	.98	.99	-	.98

* $p < .05$, ** $p < .01$, *** $p < .001$

2) 각 변인별 변화 양상

최적 모형에 맞추어 변인별 초기치와 변화율을 추정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부모 삶 만족도 변인은 초기위치의 분산(=.10)과 선형성장의 분산(=.01)이 모두 유의미하므로 초기위치와 선형성장에 개인차가 존재하며, 선형성장의 평균(= -.03)이 부적인 것으로 나타나 부모 삶 만족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요인 간의 상관(= -.01)이 부적 관계를 가지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 간 격차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전반적으로 모수 추정값들의 크기가 크지 않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녀 삶 만족도 변인은 초기위치의 분산(=.21)과 선형성장의 분산(=.01)이 모두 유의미하므로 초기위치와 선형성장에 개인차가 존재하며, 선형성장의 평균(=.01)이 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자녀 삶 만족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도별 평균의 차이가 매우 작아 전체적인 평균변화 수준도 작은 편이었다. 그리고 요인 간의 상관(= -.02)이 부적 관계를 가지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 간 격차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교적응 변인은 초기위치의 분산(=.14)과 선형성장의 분산(=.01)이 모두 유의미하므로 초기위치와 선형성장에 개인차가 존재하며, 선형성장의 평균(=-.01)이 부적인 것으로 나타나 학교적응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요인 간의 상관(=-.01)이 부적 관계를 가지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 간 격차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

각 변인별 잠재성장 모수 추정치

		부모 삶 만족도	자녀 삶 만족도	학교적응
평	초기위치	2.98***	2.83***	2.76***
균	선형성장	-.03***	.01*	-.01**
분	초기위치	.10***	.21***	.14***
산	선형성장	.01**	.01***	.01***
상	초기치	-.01*	-.02***	-.01*
관	/선형성장			

* $p < .05$, ** $p < .01$, *** $p < .001$

3. 잠재계층분석

1) 각 변인별 잠재계층 수 추정

부모 삶 만족도 변인, 자녀 삶 만족도 변인, 학교적응 변인의 측정되지 않은 잠재 집단(하위집단)들의 성장패턴을 찾아내기 위해 각 변인별 최적의 계층 수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모형 적합도 지수는 AIC, BIC, 보정된 BIC, Entropy, LMR, BLRT이며 계층 개수 별 모형 적합도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부모 삶 만족도 변인을 살펴보면 3-계층 모형의 정보지수 값이 가장 작았으며 (AIC= 8444.40, BIC= 8530.40, Adj BIC= 8482.74) BLRT는 3-계층 모형과 4-계층 모형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Entropy 지수를 확인한 결과 2-계층 모형보다 3-계층 모형이 더 높으므로 부모 삶 만족도 변인 최적의 잠재계층 수는 3개가 적

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자녀 삶 만족도 변인을 살펴보면 3-계층 모형의 정보지수 값이 가장 작았으며(AIC= 13998.60, BIC= 14084.53, Adj BIC= 14036.87) LMR은 3-계층 모형과 4-계층 모형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자녀 삶 만족도 변인 최적의 잠재계층 수는 3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학교적응 변인을 살펴보면 3-계층 모형의 정보지수 값이 가장 작았으며(AIC= 10130.85, BIC= 10216.77, Adj BIC= 10169.11) LMR은 3-계층 모형과 4-계층 모형을 비교할 때 4-계층 모형이 유의하고, BLRT는 4-계층 모형과 5-계층 모형을 비교할 때 5-계층 모형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절한 계층의 수가 적합도 별로 일치하지 않았다. 다만, 3-계층, 4-계층, 5-계층 모형 모두 잠재요인의 공분산행렬이 양의 정부호(positive definite)가 나오지 않아 해당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또한, 2-계층 모형의 Entropy 지수가 타 계층 모형보다 더 높았으므로 학교적응 변인 최적의 잠재계층 수는 2개가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6

각 변인별 잠재계층 개수 모형 적합도

부모 삶 만족도	2	3	4	5
AIC	11672.42	8444.40	8445.47	9223.28
BIC	11741.22	8530.40	8548.67	9343.68
adj BIC	11703.10	8482.74	8491.48	9276.96
Entropy	.90	.93	.92	.95
LMR	342.26**	3100.38	4.73	-750.70
BLRT	357.01***	3234.02***	4.93	-766.88
자녀 삶 만족도	2	3	4	5
AIC	14109.88	13998.60	13992.65	13910.31
BIC	14178.62	14084.53	14095.76	14030.61
adj BIC	14140.50	14036.87	14038.57	13963.89
Entropy	.91	.76	.78	.82

LMR	24.67***	112.43*	11.46	12.89*
BLRT	25.74***	117.28***	11.95***	13.45*
학교적응	2	3	4	5
AIC	10174.91	10130.85	10108.44	10093.63
BIC	10243.65	10216.77	10211.54	10213.92
adj BIC	10205.52	10169.11	10154.35	10147.20
Entropy	.91	.89	.83	.84
LMR	88.91***	48.00**	27.23**	19.95
BLRT	92.75***	50.07***	28.41***	20.81***

* $p < .05$, ** $p < .01$, *** $p < .001$

2) 잠재계층의 개별적 특성

앞서 도출된 최적의 계층 수에 맞추어 각 변인별 잠재계층의 특성을 추정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부모 삶 만족도 변인을 살펴보면 세 개의 하위계층 중 계층 2에 가장 많은 인원이 속해 있으며(1791명, 78.45%) 그 다음으로는 계층 1(347명, 15.20%), 계층 3(145명, 6.35%) 순으로 속해 있다. 계층 1은 초기 만족도가 가장 낮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낮아지는 집단이기 때문에 ‘감소집단’으로, 계층 2는 초기 만족도가 중간정도이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는 집단이기 때문에 ‘유지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계층 3은 초기 만족도가 가장 높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높아지는 집단이기 때문에 ‘증가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자녀 삶 만족도 변인을 살펴보면 세 개의 하위계층 중 계층 1에 가장 많은 인원이 속해 있으며(1590명, 69.98%) 그 다음으로는 계층 3(419명, 18.44%), 계층 2(263명, 11.58%) 순으로 속해 있다. 계층 1은 초기 만족도가 중간정도이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는 집단이기 때문에 ‘유지집단’으로, 계층 2는 초기 만족도가 가장 낮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낮아지는 집단이기 때문에 ‘감소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계층 3은 초기 만족도가 가장 높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높아

지는 집단이기 때문에 ‘증가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적응 변인을 살펴보면 두 개의 하위계층 중 계층 1에 대부분의 인원이 속해있으며(2179명, 95.95%), 계층 2는 92명(4.05%)만이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 1은 초기 값이 높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는 집단이기 때문에 ‘유지집단’으로, 계층 2는 초기 값이 가장 낮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낮아지는 집단이기 때문에 ‘감소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표 7

각 변인별 잠재계층 모수 추정치

부모 삶 만족도	계층 1	계층 2	계층 3
인원(비율)	347 (15.20%)	1791 (78.45%)	145 (6.35%)
초기위치	2.75***	3.02***	3.03***
선형성장	-.27***	-.01	.32***
자녀 삶 만족도	계층 1	계층 2	계층 3
인원(비율)	1590 (69.98%)	263 (11.58%)	419 (18.44%)
초기위치	2.78***	2.58***	3.15***
선형성장	.00	-.21***	.18***
학교적응	계층 1	계층 2	
인원(비율)	2179 (95.95%)	92 (4.05%)	
초기위치	2.77***	2.67***	
선형성장	.00	-.38***	

* $p < .05$, ** $p < .01$, *** $p < .001$

4. 잠재전이분석

부모 삶 만족도 변인, 자녀 삶 만족도 변인, 학교적응 변인의 잠재계층 간 전이확률을 알아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 표 9과 같다.

먼저 부모 삶 만족도가 자녀 삶 만족도에 미치는 계층 간 경로분석에서 준거집단은 부모_증가(C13) 집단과 자녀_증가(C23) 집단이다. 오즈비 값의 유의확률을 살펴보았을 때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경로는 부모_감소(C11)에서 자녀_감소(C21)로 전이되는 관계이다. 해당 경로의 오즈비는 .88로 C13에서 C21에 소속될 확률보다 C11에서 C21에 소속될 확률이 2.4배($= e^{0.88}$)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모의 삶 만족도가 증가하는 집단에서 자녀의 삶 만족도가 감소하는 집단으로 소속될 확률보다 부모의 삶 만족도가 감소하는 집단에서 자녀의 삶 만족도가 감소하는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자녀 삶 만족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계층 간 경로분석에서 준거집단은 자녀_증가(C23) 집단과 학교_유지(C32) 집단이다. 오즈비 값의 유의확률을 살펴보았을 때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셀은 자녀_감소(C21) 집단과 학교_감소(C31) 집단 셀이다. 해당 셀의 오즈비는 1.62로 C23에서 C31에 소속될 확률 보다 C21에서 C31에 소속될 확률이 5.1배($= e^{1.62}$)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녀의 삶 만족도가 증가하는 집단에서 학교적응이 감소하는 집단으로 소속될 확률보다 자녀의 삶 만족도가 감소하는 집단에서 학교적응이 감소하는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삶 만족도가 감소하는 집단에서 자녀 삶에 대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나아가 학교 부적응 정도가 증가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부모 삶 만족도 변인과 자녀 삶 만족도 변인 간 오즈비 및 모형에 의해 추정된 잠재 전이 확률

오즈비 / 확률	자녀_감소 (C21)	자녀_유지 (C22)	자녀_증가 (C23)
부모_감소 (C11)	.88* / 17.8%	.46 / 67.0%	- / 15.2%
부모_유지 (C12)	.18 / 12.1%	.16 / 67.2%	- / 20.7%
부모_증가 (C13)	- / 11.4%	- / 65.2%	- / 23.4%

* $p < .05$, ** $p < .01$, *** $p < .001$

표 9

자녀 삶 만족도 변인과 학교적응 변인 간 오즈비 및 모형에 의해 추정된 잠재 전이 확률

오즈비 / 확률	학교_감소 (C31)	학교_유지 (C32)
자녀_감소 (C21)	1.62*** / 15.3%	- / 84.7%
자녀_유지 (C22)	-.34 / 2.5%	- / 97.5%
자녀_증가 (C23)	- / 3.5%	- / 96.5%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 삶 만족도와 자녀 삶 만족도, 그리고 학교적응 변인 간의 종단적 변화와 잠재 성장유형간의 인과적 전이관계를 분석하였다. 지금까지의 관련 선행연구는 대부분 횡단연구가 많아 개인의 성장을 폭넓게 확인하지 못하거나, 종단분석을 사용하더라도 각 변인들의 특성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잠재성장모형, 잠재계층분석, 그리고 잠재전이분석이라는 세 가지 종단분석기법을 이용함으로써 각 변인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변인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보다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한 결과 부모 삶 만족도와 학교적응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자녀 삶 만족도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이 때 성장에 있어 집단 평균 기울기는 상대적으로 작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하위계층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차이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세 변인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 간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모 삶 만족도가 점차 감소한다는 결과는 중년기 삶 만족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한다는(임소진, 2017)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중년기 삶 만족도가 낮은 경우 노년기 삶 만족도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 문에(김경희, 2007) 부모를 위한 교육·상담이나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홍보하여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각 변인 내의 잠재 특

성에 맞게 계층을 구분한 결과 부모와 자녀 삶 만족도는 3개의 하위집단이(만족도 유지집단, 감소집단, 증가집단) 존재하며 학교적응은 유지집단과 감소집단으로 그 유형이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각 변인의 잠재계층 간 전이확률을 확인한 결과 부모 삶 만족도가 감소할수록 자녀 삶 만족도가 감소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 삶 만족도가 감소할수록 학교적응이 감소할 확률 또한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각 변인의 계층 간 이동을 파악한 결과 가장 높은 확률을 차지한 계층 이동 패턴은 부모 삶 만족도 유지집단-자녀 삶 만족도 유지집단-학교적응 유지집단 패턴으로 과반수(55.46%)가 이에 속해 있었다.

이처럼 부모 삶 만족도가 감소할수록 자녀 삶 만족도가 감소한다는 결과는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는 연구(류유리, 2015; 박경희, 2013; 박은희, 2014; 윤기영, 2002; 이정희, 2014; 이길홍 외, 1982; 이해경, 2013; 주은미, 2011; 최선남, 최외선, 1995)와 연계되어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부모가 삶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가 자녀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자녀 삶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변화와 인도가 매우 중요하며 삶 만족도 개선 프로그램에 있어 부모의 참여활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 삶 만족도가 감소할수록 자녀의 학교적응이 감소한다는 결과는 청소년의 삶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교적응력이 높아진다는 연구(강승희, 2010; 김문선, 2013; 전현정, 정혜원, 2016)와 일치하며 청소년 삶 만족도와 학교적응의 연관성을 논하는 연구(고미숙, 2017; 권순용, 양연숙, 2007; 전신현, 1996)를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학교적응 프로그램은 개인 삶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서적 요소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간의 연구에서는 학교부적응의 주요 요인으로 학습부진을 언급해 왔으며 학교현장에서도 학습활동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접근을 주로 시도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 삶 만족도와 부모 삶 만족도 등 정서적 요인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토대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중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패널(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초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패널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즉, 학교급별 연구를 통하여 각 연령대에 맞는 학교적응 프로그램의 구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패널 자료의 이용은 전국 단위의 종단 자료를 통해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미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기 때문에 척도를 다양하게 구성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 삶 만족도 변인은 단일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론 단일문항을 사용하는 경우 다중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와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연구가 다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김용숙, 2009; Bergkvist & Rossiter, 2007; Cunny & Perri, 1991; Drolet, Morrison & Drolet, 2001; Hyland & Sodergren, 1996; Lambert & Larcker, 1987; McKenzie & Marks, 1999; Scarpello & Campbell, 1983; Wanous, Reichers & Hudy, 1997). 하지만 단일문항 접근은 내용 타당도 측면과 측정오차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는 신뢰도 측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추후 부모 삶 만족도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검사 도구를 이용하거나 새로운 문항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변인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패널조사에서 시행한 학교적응 변인의 하위요인(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중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습활동 변인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하위요인의 세부적인 특성을 살리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관련 변인들을 모형에 추가함으로써 변인간의 효과를 통제하고 더욱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 관찰된 계층 간 이동패턴 17개 중 부모 삶 만족도 증가집단-자녀 삶 만족도 증가집단-학교적응 유지집단 패턴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부모 삶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자녀 삶 만족도가 증가하고, 학교적응 역시 감소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나타내는 집단은 전체의 1.57%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해당 패턴에 소속된 학생들의 상세 정보를 추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보다 깊은 교육적 함의를 찾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모 삶 만족도 변인, 자녀 삶 만족도 변인, 학교적응 변인의 성장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구인에 걸쳐 전반적으로 각 변인의 성장 폭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기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과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성인기로의 이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삶 만족도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추가적으로 탐색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학문적 기초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승희 (2010). 중학생의 부·모애착, 우울, 심리적 안녕감,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8(3), 1-29.
- 강유진, 문재우 (2005). 청소년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요인의 영향: 가족배경요인과 가족관계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한국청소년연구**, 16(1), 283-315.
- 고미숙 (2017). 청소년의 정서문제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인지발달중재학회지**, 8(1), 89-104.
- 구현영, 박현숙, 장은희 (2006). 고등학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영향 요인. **대한간호과학회지**, 36(1), 151-158.
- 권순용, 양연숙 (2007). 청소년의 심리정서 상태, 학업동기, 가족기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2(3), 115-129.
- 권영주 (2008). **대학생과 부모의 행복에 대한 연구: 정서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경자 (2016). **한국 청소년과 부모의 스트레스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경희 (2007). **청소년기 자녀를 둔 40대 남녀의 스트레스 인지수준과 가정생활 만족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남정, 임영식 (2012). 청소년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청소년활동의 중재효과. **청소년학연구**, 19(8), 219-240.
- 김도란, 김정원 (2008). 유아의 행복감과 부모의 행복감과의 관계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3(6), 311-333.
- 김문선 (2013). **부모의 양육행동, 청소년의 또래애착 및 삶의 만족도가 1년 후 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신영, 백혜정 (2008). 한국청소년행복지수 개발연구. **한국사회학**, 42(6), 140-173.
- 김용숙 (2009). 단일 문항 척도의 타당도 조사: 심부전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중심으로. **기본간호학회지**, 16(4), 490-496.
- 김의철, 박영신 (2001). IMF시대 한국 학생과 부모의 스트레스와 대처양식 및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

학회지: 건강, 6(1), 77-105.

김지혜 (1998). **청소년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지지체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혜원, 홍미애 (2007).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질 정도와 설명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14(2), 269-297.

류유리 (2015).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문은식 (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관련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박경희 (2013). **부모-자녀관계와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및 창의적 성격의 관계**.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부모의 사회적 지원,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한 종단자료 분석과 생활만족도 형성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심리연구**, 16(2), 63-92.

박은희 (201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와 학습동기 변인 및 학습몰입과의 관계**.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손수경, 이현정, 홍세희 (2017). 학교 학습활동과 교우관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할함수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종단관계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8(3), 57-88.

송성자 (1997).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문화 비교와 한국 가족치료 접근 전략. **한국가족치료학회지**, 5(1), 1-26.

송순만, 백진아 (2016). 부모방임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성과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4(10), 327-337.

신미, 전성희, 유미숙 (2012).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분석. **아동학회지**, 33(1), 81-92.

신태수 (2011). 군집분포의 형태와 표본의 크기가 성장혼합모형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연구. **교육평가연구**, 24(1), 107-127.

윤기영 (2002). 부모-자녀관계 관련연구의 최근 동향분석. **교육발전**, 21(1), 169-197.

이경희 (201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와 의사소통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 미치는 영향.**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규미 (2005).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83-398.
- 이길홍, 김현수, 민경근 (1982). 학생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가정의 심리풍토 특성과의 관계에 대한 상관분석. **신경정신의학**, 21(4), 611-627.
- 이명숙 (2013).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가족기능 및 진로 정체감의 영향: 한국-중국 비교 연구. **청소년학연구**, 20(4), 151-174.
- 이혜경 (2013).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자녀관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습몰입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혜진 (2011).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소진 (2017). **중·노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 및 예측요인 분석: 잠재성장모형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임수경, 이형실 (2007).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9(3), 169-183.
- 장영애, 박정희 (2008).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3(2), 69-85.
- 전신현 (1996). 청소년의 삶의 질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5, 63-82.
- 전현정, 정혜원 (2016).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과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이 삶의 만족도를 매개로 자녀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7(2), 215-242.
- 정화실 (2009). **초등학생의 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주은미 (2011).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와 자기효능감 및 낙관성의 관계.**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주현정 (1998).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선남, 최외선 (1995). 가족환경변인 및 아동기 부모-자녀 결합 형태가 청소년의 우울 성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3(3), 31-42.

- 최유선, 손은령 (2015). 청소년이 지각한 대인관계 양상, 학업성취, 삶의 만족도의 관계: 성별, 학교급별 비교. **상담학연구**, 16(2), 233-247.
- 최유엔 (2003).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매향 (2006).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차이. **아시아교육연구**, 7(3), 187-203.
- Asparouhov, T., & Muthén, B. (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 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329-341.
- Bakk, Z., & Kuha, J. (2017). Two-step estimation of models between latent classes and external variables. *Psychometrika*, <https://doi.org/10.1007/s11336-017-9592-7>.
- Bakk, Z., Tekle, F. B., & Vermunt, J. K. (2013). Estimating the association between latent class membership and external variables using bias-adjusted three-step approaches. In T. F. Liao (Ed.), *Sociological Methodology*. Thousand Oake, CA: SAGE publications.
- Bergkvist, L., & Rossiter, J. R. (2007). The predictive validity of multiple-item versus single-item measures of the same construct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4(2), 175-184.
- Brandt, H., Kelava, A., & Klein, A. (2014). A simulation study comparing recent approaches for the estimation of nonlinear effects in SEM under the condition of nonnormalit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2), 181-195.
- Cunhy, K. A., & Perri, M. (1991). Single-item vs multiple-item measures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Psychological Reports*, 69(1), 127-130.
- Drolet, A. L., Morrison, D. G., & Drolet, A. L. (2001). Do we really need multiple-item measures in service research?. *Journal of Service Research*, 3(3), 196-204.
- Hyland, M. E., & Sodergren, S. C. (1996). Development of a new type of global quality of life scale, and comparison of performance and preference for 12

- global scales. *Quality of Life Research*, 5(5), 469-480.
- Lambert, R. A., & Larcker, D. F. (1987). An analysis of the use of accounting and market measures of performance in executive compensation contract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5, 85-125.
- McKenzie, N., & Marks, I. (1999). Quick rating of depressed mood in patients with anxiety disorders.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74(3), 266-269.
- OECD (2017). Better life index.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countries/korea>.
- Raftery, A. E. (1995). Bayesian model selection in social research. *Sociological Methodology*, 25, 111-163.
- Scarpello, V., & Campbell, J. P. (1983). Job Satisfaction: Are All the Parts There?. *Personnel Psychology*, 36(3), 577-600.
- Shin, T. (2012). The application of various nonlinear models to describe academic growth trajectories: An empirical analysis using four-wave longitudinal achievement data from a large urban school district.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13(1), 65-76.
- Vermunt, J. K. (2010). Latent class analysis modeling with covariates: Two improved three-step approaches. *Political Analysis*, 18(4), 450-469.
- Wanous, J. P., Reichers, A. E., & Hudy, M. J. (1997). Overall job satisfaction: How good are single-item measur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2(2), 247-252.

ABSTRACT

An analysis of cause and effect transitions among parents' and children's life satisfaction and school adjustment: Focusing on latent transition analysis using growth mixture models

Kang, Yunah* · Shin, Tacks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 and effect transitions among parents' and students' life satisfaction and school adjustment.

In the analysis of LGM, the growth trajectory of parents' life satisfaction and school adjustment tended to decrease over time, whereas the growth trajectory of children's life satisfaction increased across time. In the analysis of LCA, there were three latent classes for parents' and students' life satisfaction and two for school adjustment. According to LTA, the parent group, which evidenced decreasing life satisfaction are more likely to assign to the student group with decreasing life satisfaction. Moreover, students who report decreasing life satisfaction tended to evidence increasing maladjustment in school.

Key Words: life satisfaction, school adjustment, parent-child relationship, longitudinal study,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KCYPS)

투고일: 2018. 6. 9, 심사일: 2018. 8. 3, 심사완료일: 2018. 8. 13

* Researcher, Institute of University Education Innovation, Myongji University, First Author, yunah26@naver.com

** Professor, Department of Youth Education and Leadership, Myongji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shin16@mju.ac.kr